

2008년 04월 16일 (수) 06:31 [연합뉴스](#)

부산시, 하반기에 `문화재단' 설립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시가 민간 전문가 주도의 문화예술사업을 펼치기 위해 하반기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민간에 넘겨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 (가칭)부산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5월까지 시의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6월에 세부 계획을 세운 뒤 조례 및 정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재단법인 형태로 문화재단을 설립해 내년 1월부터 본격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산시는 우선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억원으로 재단을 설립한 뒤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억원을 시 예산에서 출연해 총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단의 조직은 부산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이사를 두기로 했으며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의 인력은 사무처장 1명과 직원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문화재단의 운영경비는 연간 3억원을 예정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고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연간 50여억원의 지원금 심사와 집행을 비롯해 공연과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자체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lyh9502@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